

한국판 아동기 양육 척도 (Parenting Scale for Child; PS-C) 타당화*

김 선 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김 수 빈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

안 정 광[†]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척도인 양육 척도(Parenting Scale)를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400명의 부모(남성 160명, 여성 240명, 평균 43.4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표본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8문항 4요인 구조(비일관성, 정서적 과잉반응, 행동적 과잉반응, 과잉허용)가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형과 원척도의 2요인 구조를 상위요인으로 하는 위계적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 두 구조를 채택하였다. 최종 척도의 신뢰도는 우수하였고, 다른 양육 유형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양호하였다. 양육 척도는 아동의 내·외현화 문제행동,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양육 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등 준거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 적합한 부모 양육 행동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심각도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평가 및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양육 행동, 비일관성, 정서적 과잉반응, 행동적 과잉반응, 과잉허용

* 본 연구는 2025년 European Association for Behavioural and Cognitive Therapies(EABCT)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4단계 BK21사업(2024)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정광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Tel: 043-261-2185 / E-mail: jkahn@cbnu.ac.kr

 Copyright ©2026,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은, 정서적 지지가 풍부하지만 비교적 비구조화된 유치원 환경에서 성취를 중시하고 구조화 수준이 높은 초등학교 환경으로 이동하는 발달 과정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만 6-12세 아동은 부모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학교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기대를 포함한 구조화된 환경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Shoshani & Aviv, 2012). 이러한 발달적 전환기에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이후 학업 성취와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을 예측하는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정운, 이경아, 2004; Wong et al., 2021). 이처럼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는 핵심적인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양육 행동을 차원적으로 개념화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Schaefer (1965)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애정-거부과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Baumrind(1971), Maccoby와 Martin(1983)은 이러한 차원적 접근을 확장하여, 부모의 요구 수준과 반응성에 따라 양육 행동을 유형화함으로써 부모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Skinner 등(2005)은 양육 행동을 부모의 특성으로 보기보다, 아동이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사회적 맥락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확장되며(Grolnick & Pomerantz, 2009;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양육 행동이 아동의 주관

적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차원 및 유형적 접근은 양육 행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Pinquart & Teubert, 2015),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모의 구체적 양육 행동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metana, 2017).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는 학교 생활 부적응과 또래 관계의 어려움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 행동의 전반적인 측면보다, 훈육 상황에서 부모가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Patterson(1984)은 강압 이론(coercive theory)을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하는지 설명하였다. 부모의 지시에 대해 아동이 짜증이나 반항, 소리지르기와 같은 부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저항한다면, 부모는 이에 더 강압적인 행동(예: 고함, 위협, 체벌 암시, 과도한 잔소리 등)을 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더 큰 분노 표현과 반항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반복될 경우, 부모는 강압적으로 훈육을 하다가도 때로는 자녀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훈육을 하지 않는 등,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은 이 과정에서 더 세게 반응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학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 증가한다. 즉 이와 같은 과잉 통제와 허용의 반복인 비일관적 훈육이 문제행동을 부정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강압 이론의 핵심이다.

훈육 상황에서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여 감정적으로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욕설이나 체벌, 비난과 같은 행동적 과잉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행동이 강화된다(Frye & Garber, 2005; Rodriguez-Ayllon et al., 2019). 특히 행동적 과잉반응은 적대적인 훈육 방식의 핵심적 특징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규칙 위반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9; Serbin et al., 2015; Zhang et al., 2020).

이러한 과잉반응 뿐만 아니라, 훈육 상황에서 부모는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비일관적인 훈육 행동을 하기도 한다. 비일관적인 훈육 반응 또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Bögels et al., 2014; Fuentes-Balderrama et al., 2020; Gryczkowski et al., 2010). 특히 비일관적인 훈육을 경험한 아동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순응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Compton et al., 2003; Eddy et al., 2001; Snyder et al., 2005). 더 나아가 부모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이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잉허용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과잉허용이 아동의 자기조절 발달을 저해하고, 특히 외현화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Ruiz-Robledillo et al., 2019; Stewart et al., 2024).

이러한 훈육 반응은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는 훈육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Jones & Prinz, 2005;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훈육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통제적이고 체벌적이며, 감정적이고 과도한 훈육 반응을 보인다(Albanese et al., 2019; Wittkowski et al., 2017). 양육효능감과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도 훈육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비난이나 명령 중심의 훈육을 사용하는데 기여한다(Anthony et al., 2005). 또한, 부모의 우울과 불안은 자녀의 요구에 대한 둔감성, 비판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와 같은 역기능적인 훈육 반응과 관련이 있다(김현수, 신혜린, 2012; Moore et al., 2004; Taraban & Shaw, 2018). 특히, 불안이 높은 부모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행사하는 양육 행동을 보이며 상황을 파국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Ginsburg et al., 2006).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훈육 상황에서의 양육 행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필요하다(Arnold et al., 1993; Prinzie et al., 2007; Rhoades & O'Leary, 2007). Arnold 등(1993)은 이론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경험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되는 훈육 반응을 파악하여 이를 측정하고자 양육 척도(Parenting Scale [P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느슨한 훈육(laxness), 과잉반응(over-reactivity), 언어적 장황함(verbosity)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느슨한 훈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설정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과하게 허용하는 양육 행동을 의미하며, 총 11문항으로 되어 있다. 과잉반응은 자녀에 대한 분노 표출이나 짜증, 비난 등을 말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상황함은 대화가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부모가 불필요하게 긴 언어적 반응을 지속하는 특성을 측정하며, 총 7문항으로 되어 있다. Arnold(1997)는 부모의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 요인이 각각 Baumrind(1968; 1991)가 설명한 허용적(permiss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 유형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18-48개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Prinzie 등(2007)이 만 5-11세의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서 원칙도의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 요인은 반복적으로 재현된 반면(Collett et al., 2001; Harvey et al., 2001; Irvine et al., 1999; Prinzie et al., 2007; Reitman et al., 2001), 언어적 상황함 요인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확인되었을 뿐(Arney et al., 2008) 아동기나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는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다. 이는 언어적 상황함이라는 요인이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 반응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hoades & O'Leary, 2007). 실제로, 원칙도의 언어적 상황함 요인에 포함되었던 문항(예: "I give my child a long lecture. ↔ I keep my talks short and to the point.")이 Prinzie 등(2007)의 연구에서 과잉반응 요인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게 장황한 설명이 독립된 요인이자보다 감정적

으로 과도한 반응 또는 적대적 반응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Rhoades와 O'Leary(2007)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상황함 요인이 재현되지 않는 점을 보고하면서, 학령기에서는 언어적 상황함보다 신체적 또는 언어적 힘을 동반한 적대적 훈육 반응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거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유아기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행동이 학령기로 갈수록 보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령기 부모의 훈육 반응을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지지되어 온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이라는 상위차원을 유지하되, 그 내부에서 보다 세분화된 반응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 따라서, PS를 한국 문화 맥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요인 구조의 재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학령기에서의 추가 요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모 양육 관련 척도들 역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임호찬(2008)의 양육 태도 척도(Parenting Attitude Test [PAT])는 주로 부모의 태도 중심의 측정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양육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기 어렵다. 점수의 양극단 모두를 역기능적으로 해석하기에 실천적 개입과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PSCQ])는 원칙도에 태도나 신념 수준의 세 차원이 제시되었으나(Skinner et al., 2005), 국내에서는 차원 단위보다 요인 단위의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교영, 신희천, 2011). 이는 국내에서 보

다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한국 문화적 맥락을 측정하기에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척도 모두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부모의 전반적인 태도나 신념을 중심으로 측정된다는 공통된 한계가 있으며, 실제 훈육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훈육 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개입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rinzie 등(2007)의 양육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 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훈육 상황에서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우울 및 불안,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양육 행동 척도의 요인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한국판 양육 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한 명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당 한 명의 부모만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충북대학교 4단계 BK21사업(2024)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응답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수집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 설명서 및 연구 참가

동의서를 읽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총 854명이었으며,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설문이 종료되어 총 4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 160명(40%), 여성 240명(6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3.4세($SD = 4.04$)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BNU-2025-A-0005)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양육 척도(PS)

이 척도는 Arnold 등(1993)이 개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한다. Prinzie 등(2007)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척도를 재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수정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척도 개발자에게 사용 및 타당화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원척도에 비해 Prinzie 등(2007)의 양육 척도는 일부 문항이 탈락하여 하위요인이 두 개이고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양방향으로 구성되며 양육 행동의 정도를 1점부터 7점까지 더 가까운 곳에 평정한다. 첫 번째 요인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일관적이거나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양육 특성을 나타내는 느슨한 훈육(laxness) 요인으로,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다(예: “When my child misbehaves ... do something right away - I do something about it later.”). 두 번째 요인은 분노, 좌절, 모욕, 욕설 등과 같은 참을성 없고 강압적인 양육을 특징으로 하는 과잉반응(over-reactivity) 요인으

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두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예: “When I’m upset or under stress ... I am no more picky than usual - I am picky and on my child’s back.”). 본 연구에서 번안 과정에는 국내 심리학과 교수 1명과 임상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1명, 석사과정생 5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언어자인 임상심리전공 교수 1명이 역번역하였다. 번역과 역번역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 및 논의 과정을 거쳤다. Prinzie 등(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어머니의 느슨한 훈육에서 .78, 과잉반응에서 .81 - .82, 아버지의 느슨한 훈육에서 .76 - .77, 과잉반응에서 .82 - .83 나타났다.

양육 유형 및 차원 질문지(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PSDQ])

이 척도는 Robinson 등(1995)이 개발하였으며 Baumrind가 제안한 양육 유형을 측정하는 총 62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발달심리 연구실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이승진(2016)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하위요인은 권위적(민주적, 예: “아이 친구들의 이름을 안다.”), 권위주의적(예: “아이가 보는 데서 분노를 폭발시킨 적이 있다.”), 허용적(예: “아이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는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평정된다. Robinson 등(199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권위적(민주적) 요인에서 .91, 권위주의적 요인에서 .86, 허용적 요인에서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권위적(민주

적) 요인에서 .94, 권위주의적 요인에서 .87, 허용적 요인에서 .74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

이 척도는 Achenbach 등(1991)이 개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의 주 양육자가 자녀의 적응 상태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 등(2010)이 번안 및 표준화한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내재화 문제(예: “외로움을 호소한다.”)와 외현화 문제(예: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오경자 등(2010)의 연구에서 척도별 내적 합치도는 .57 -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

이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가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정미 등(2014)이 번안 및 표준화한 총 15문항의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K-PSO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위요인은 유능감과 안정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감 요인은 8문항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자신의 판단을 측정한다(예: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안정감 요인은 7 문항으로,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측정하는 안정감을 측정하며, 모두 역채점한다(예: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다. 정경미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유능감에서 .85, 안정감에서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유능감에서 .91로 나타났다.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K-PSI-4])

이 척도는 Abidin(1995)이 개발하였으며, 만 1-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역기능적인 양육과 관련된 아동, 부모, 상황적 특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경미 등(2019)이 표준화한 총 12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K-PSI-4) 확장형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하위요인은 아동 영역(예: “우리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끈질기게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과 부모 영역(예: 내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생활 스트레스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된다. 정경미 등(201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이 척도는 Kroenke 등(2001)이 개발하였으며, 주요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재용 등(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예: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척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근 2주 동안의 우울 증상에 대해 ‘전혀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3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범불안 증상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이 척도는 Spitzer 등(2006)이 개발하였으며, 범불안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번역본 7문항이 제공되고 있으며(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한국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또한 입증되었다(Ah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통해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근 2주 동안의 불안 증상에 대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0점)’에서 ‘거의 매일 방해받았다(3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분석절차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Jamovi 2.6 version과 Mplus 8.8 version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

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차 타당화를 위해 전체 400명의 데이터를 난수표를 통해 무작위로 200명씩 두 집단으로 분할하였다. 이후 첫 번째 집단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두 번째 집단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Shapiro-Wilk 검정을 하여 정규성 가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검정은 매우 엄격하여 영가설이 채택되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 영가설이 기각된 경우, 왜도와 첨도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2 이상, 첨도의 절댓값이 7 이상일 경우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West et al., 1995), 그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및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하였다. KMO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자료들의 상관이 요인분석을 하기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9 이상이면 매우 적절하고, .8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Kaiser, 1974).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영가설은 수집된 자료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되어야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Bartlett, 1950).

요인 추출에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 우도법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를 표본으로 가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회전방식으로는 사회과학 연구 특성상 요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요인 간 상관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사각(oblique)회전 중 Oblimin 기법을 활용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하였고, 스크리 도표(scree plot)와 고유값(eigenvalues)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 문항은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 및 요인 부하량을 산출하여 척도와 상관이 .4 이상인 문항들로 선정하였다(Stevens, 2009).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다른 20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쟁 모형과 비교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square test of model fit (χ^2),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standard root-mean-square residual (SRMR),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통해 확인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어 요인 수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CFI와 TLI, RMSEA를 함께 보고한다(Fabrigar et al., 1999). CFI와 TLI는 .9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최소 .7 이상이어야 한다(Hair et al., 2019). SRMR은 .05보다 작을 경우 좋은 적합도로, .80보다 작을 경우 적절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Byren, 2013; 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et al., 1993). 한편, 오차 분산이 높은 문항의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확인하여 공분산을 설정하였다(Sörbom, 1989). 수정 지수는 특정 변수들 간의 오차 공분산을 추가했을 때 χ^2 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제안하는 값이다(Dimitrov, 2012). 이때 이론적 근거와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Erkorkmaz et al., 2013).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완료한 후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자료를 사용하여 내적합치도 계수

인 Cronbach's α 와 McDonald's ω 를 산출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양육 척도와 양육 유형 및 차원 질문지 및 부모 양육 태도 검사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였다. 양육 척도와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및 우울증 선별 도구, 한국형 범불안 척도,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여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의 r 값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1은 작은 크기, .3은 중간 크기, .5 이상은 큰 크기로 해석하였다(Cohen, 1988).

마지막으로, 임상적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 척도의 심각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평균 ± 1 표준편차를 절단점 혹은 심각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김다혜 등, 2024; 이정운, 최정훈, 1997; Sanders et al., 2003). 1 표준편차 상단은 통계적으로 상위 약 16%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양육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표 1). 전체 문항에 대하여 Shapiro-Wilk 검정 결과, Shapiro-Wilk $W = .99$, $p = .50$ 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개별 문항은 왜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댓값 7 미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et al., 1995). KMO 표본 적합도 지수는 .8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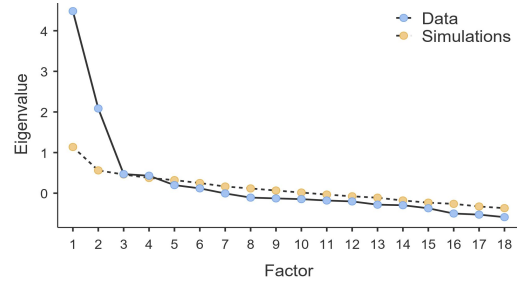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양육 척도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정 결과는 $\chi^2(153, N = 200) = 1321$, $p < .001$ 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한국판 양육 척도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 자료의 고유값이 무작위 자료의 고유값을 상회하는 요인이 4개로 나타나, 요인 수는 4개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번 문항이 요인 1과 요인 2, 요인 4에 각각 .31, .37, .33으로 교차 부하되어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문항 삭제 후 평행선 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요인 수는 3개로 나타났다. 이때 19번 문항이 요인 2와 요인 3에 각각 .34, .30으로 교차 부하되어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평행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 스크리 도표(scree plot)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최종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양육 척도는 4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7, N = 200) = 124$, $p = .005$, TLI = .94, RMSEA = .05 (90% CI [.03, .06]).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내가 충분히 엄포를 놓고 경고를 했을 때 나는, 경고한대로 한다. ↔ 종종 경고한 대로 하지 않는다.”와 같이 비일관적인 제한설정을 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비일관성(inconsistency)’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아이가 잘못된 행

표 1. 한국판 양육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설명	요인				1- <i>R</i> ²
		1	2	3	4	
5	내가 충분히 엄포를 놓고 경고를 했을 때 나는, 경고한대로 한다 ↔ 종종 경고한 대로 하지 않는다.	.79	.09	-.01	-.10	.60
6	나는 경고를 할 때, 반드시 경고한대로 한다 ↔ 실제로는 경고한대로 하지 않을 걸 안다.	.76	.01	.05	-.08	.57
7	아이가 내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아이가 말을 듣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다 ↔ 종종 그냥 두거나 결국 내가 하게 된다.	.66	-.05	.03	.10	.50
8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이 먹히지 않을 때 나는, 아이가 말을 듣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다 ↔ 아이가 말을 듣도록 좋아할 만한 것을 준다.	.65	-.15	-.02	.11	.47
9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나중에 조치를 취한다.	.54	-.04	.06	.14	.38
10	내가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속상해하면, 나는 아이에게 끝까지 못하게 한다 ↔ 나는 한 발 물러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	.54	.15	-.13	.12	.36
11	아이가 내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아이가 말을 듣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다 ↔ 종종 그냥 두거나 결국 내가 하게 된다.	.35	.07	.04	.10	.18
1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를 해결한다 ↔ 아이가 알아차릴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04	.86	.03	-.01	.75
1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한다 ↔ 목소리가 커지거나 소리를 지른다.	.06	.79	-.02	.02	.64
17	내가 속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 나는 예민해져서 애를 잡는다.	-.05	.55	.10	.03	.36
18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짧게 요점을 말한다 ↔ 아이에게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는다.	.09	.40	.19	-.04	.30
14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인격모독, 또는 욕을 한다. 거의 그렇지 않다 ↔ 대부분 그렇다.	-.04	-.05	.92	-.00	.78
15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쁜 말이나 욕을 거의 하지 않다 ↔ 거의 언제나 욕을 한다.	.06	.22	.67	-.04	.68
16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 걸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 ↔ 일이 점점 커져서 내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	.20	.15	.45	.05	.41
20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를 때리거나, 뺨을 치거나, 세계 몸을 붙잡는 등의 처벌을 가한다. 거의 그렇지 않다 ↔ 대부분 그렇다.	-.01	.03	.45	.10	.23
1	나는, 아이가 해도 되는 일에 제한을 두는 부모이다 ↔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두는 부모이다.	-.08	.03	-.04	.84	.65
3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나는, 아이에게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한다 ↔ 아이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둔다.	.30	-.07	.14	.58	.60
4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치를 취한다 ↔ 자주 그냥 봐준다.	.20	.21	-.06	.33	.24

주 1. 요인 1 = 비밀관성; 요인 2 =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 3 =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 4 = 과잉허용.

주 2. 각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은 굵게 표시하였음.

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를 해결한다. ↔ 아이가 알아차릴 정도로 짜증이나고 화가 난다.”와 같이 정서적으로 과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서적 과잉반응(emotional over-reactivity)’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쁜 말이나 욕을 거의 하지 않는다. ↔ 거의 언제나 욕을 한다.”와 같이 정서적인 반응을 넘어 욕설이나 신체적 체벌 등 적대적인 행동으로 과하게 반응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행동적 과잉반응(behavioral over-reactivity)’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아이가 해도 되는 일에 제한을 두는 부모이다. ↔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두는 부모이다.”와 같이 자녀에게 과하게 허용해주는 반응을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잉허용(over-permissiveness)’이라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4요인 구조는 비일관성과 과잉허용 요인의 문항이 모두 느슨한 훈육 요인에, 정서적 과잉반응과 행동적 과잉반응 문항이 모두 과잉반응 요인에 각

각 부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요인 간의 개별적 구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위 차원의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요인 구조로 통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Prinzie 등(2007)이 제안한 2요인 구조와 더불어,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을 상위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하위요인을 이들에 종속된 하위차원으로 구성한 위계적 요인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 지수(MI)를 확인하고 문항 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공분산 또는 회귀 경로를 설정하였다. 2요인 모형에서는 문항 12번과 13번(MI = 76.3), 14번과 15번(MI = 49.1) 간의 문항 내용이 유사하여 공분산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chi^2(132) = 270$, CFI = .90, TLI = .88, SRMR = .07, RMSEA = .07, 90% CI [.060, .085]로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4요인 모형에서는 문항 17번과 20번(MI = 28.5), 16번과 20번(MI = 16.7) 간 회귀 경로를 설정하였고, 위계적 모형에서도 동일한 두 문항 쌍에 대해 회귀 관계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4요인 및 위계적 모형은

표 2. 한국판 양육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2요인	270***	132	.90	.88	.07	.07	.06	.09
4요인	235***	127	.92	.90	.06	.07	.05	.08
위계적 요인	235***	128	.92	.91	.06	.07	.05	.08

주 1. CI = confidence interv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SRMR = standard root-mean-square residual;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주 2. 최종 모형을 굵게 표시하였음.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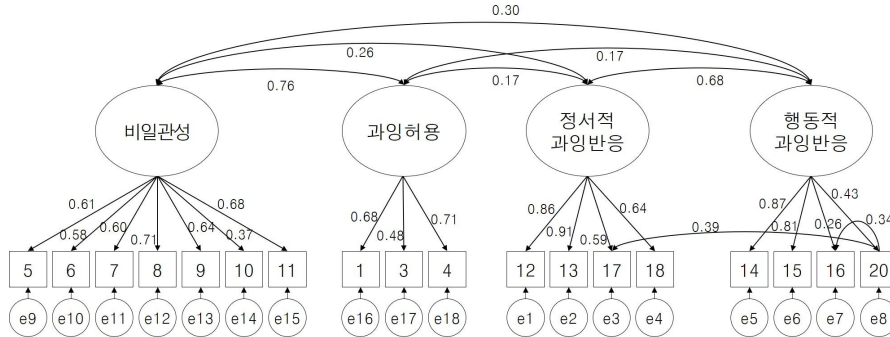


그림 2. 4요인 모형의 요인계수 및 요인 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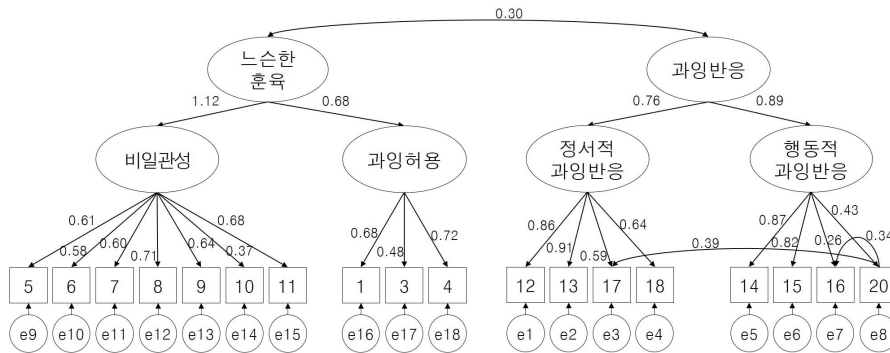


그림 3. 위계적 모형의 요인계수 및 요인 간 상관계수

$\chi^2 = 235$, CFI = .92, TLI $\approx$.90, SRMR = .06, RMSEA = .07, 90% CI [.052, .078] 수준으로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형과 위계적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요인계수 및 요인 간 상관은 각각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범위는 .26 - .9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all p s < .001.

신뢰도 검증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400명

의 전체 자료를 통해 최종 모형에 대한 각 요인별 기술 통계치 및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표 3). 총 400명의 참가자들의 문항 총점 평균은 3.02점($SD = 0.72$)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의 범위는 .65 - .86이었다.

수렴타당도

우선 양육 척도의 구조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 척도 총점과 각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모든 하위요인은 양육 척도 총점과 큰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58 - .81$, all p s < .001. 느슨한 훈육 상위요

표 3. 한국판 양육 척도의 기술 통계 분석 및 내적합치도 ($N = 400$)

	<i>M</i>	<i>SD</i>	Cronbach's α	McDonald's ω
총점	3.02	0.72	.85	.85
느슨한 훈육	2.99	0.83	.83	.84
비일관성	2.95	0.90	.81	.82
과잉허용	3.06	1.00	.65	.67
과잉반응	3.06	0.99	.86	.86
정서적 과잉반응	3.93	1.19	.81	.82
행동적 과잉반응	2.19	1.03	.79	.80

표 4. 한국판 양육 척도 내외 PSDQ 간의 Pearson 상관분석

	양육 척도 총점	느슨한 훈육	요인 1	요인 4	과잉 반응	요인 2	요인 3	PSDQ 권위적 (민주적)	PSDQ 권위 주의적	PSDQ 허용적
양육 척도 총점	-									
느슨한 훈육	.81***	-								
요인 1	.78***	.95***	-							
요인 4	.58***	.76***	.52***	-						
과잉반응	.79***	.28***	.29***	.16**	-					
요인 2	.70***	.22***	.22***	.13*	.91***	-				
요인 3	.72***	.29***	.30***	.15**	.88***	.60***	-			
PSDQ 권위적 (민주적)	-.36***	-.25***	-.27***	-.11*	-.34***	-.27***	-.34***	-		
PSDQ 권위주의적	.51***	.17***	.21***	.04	.65***	.54***	.64***	-.27***	-	
PSDQ 허용적	.56***	.47***	.49***	.26***	.43***	.33***	.45***	-.45***	.61***	-

주 1. 요인 1 = 비일관성; 요인 2 =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 3 =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 4 = 과잉허용.

주 2. PSDQ = 양육 유형 및 차원 질문지(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 $p < .05$. ** $p < .01$. *** $p < .001$.

인은 비일관성 및 과잉허용과 큰 크기의 상관
을, 정서적 과잉반응 및 행동적 과잉반응과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76 - .95$, r
 $= .22 - .29$, all $ps < .001$. 반면에 과잉반응 상

위요인은 정서적 과잉반응 및 행동적 과잉반
응과 큰 크기의 상관을, 비일관성 및 과잉허
용과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88$
 $- .91$, $r = .16 - .29$, all $ps < .001$. 따라서 양육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 위계적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양육 척도와 양육 유형 및 차원 질문지(PSDQ)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PSDQ의 권위적 유형(민주적)은 양육 척도의 총점 및 과잉반응 상위요인, 행동적 과잉반응 하위요인과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36$, $r = -.34$, $r = -.34$, all $ps < .001$. PSDQ의 권위주의적 유형은 양육 척도의 총점 및 과잉반응, 정서적 과잉반응 및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과 큰 크기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51$, $r = .65$, $r = .54$, $r = .64$, all $ps < .001$. 한편, 과잉허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4$, $p = .46$. PSDQ의 허용적 유형은 양육 척도의 총점과 비일관성,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과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56$, $r = .49$, $r = .45$, all $ps < .001$.

준거타당도

한국판 양육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BCL 6-18) 및 양육효능감 척도(PSOC), 우울증 선별 도구(PHQ-9), 한국형 범불안 척도(GAD-7),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K-PSI-4)를 사용하였다(표 5).

CBCL 6-18을 통해 측정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양육 척도의 정서적 과잉반응 및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과 그 상위요인인 과잉반응과 작거나 중간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25$, $r = .30$, $r = .30$, all $ps < .001$. 또한, 비일관성 및 느슨한 훈육 요인과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으나, $r = .12$, $p = .01$, 과잉허용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 = .08$, $p = .1$. 한편,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양육 척도의 비일관성 및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과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r = .12$, $p = .01$, $r = .14$, $p = .005$.

양육효능감은 양육 척도의 총점 및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작거나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r = -.19$ -.43, all $ps < .001$, 과잉허용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 = -.09$, $p = .08$.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 영역과 부모 영역 모두에서 양육 척도의 총점과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7$, $r = .34$, all $ps < .001$. 양육 척도의 과잉허용 요인은 다른 척도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 영역에 대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서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1$, $p = .03$. 이는 자녀를 요구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채 과잉허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 및 불안은 양육 척도의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과, $r = .22$, $r = .20$, all $ps < .001$,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에서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6$, $r = .13$, all $ps < .01$. 그러나 비일관성 및 과잉허용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각도 분류

전체 참가자의 양육 척도 문항 평균은 54.36점, 표준편차는 13점이었다. 이에 따라 18점 이상 41점 이하(낮음, “대체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을 하고 계시며, 특별히 걱정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42점 이상 54점

표 5. 한국판 양육 척도와 CBCL, PSOC, PSI, PHQ, GAD 간의 Pearson 상관분석

양육 척도 총점	노스한 혼육	요인 1	요인 4	과잉 반응	요인 2	요인 3	CBCL 내재화	CBCL 외현화	양육 효능감	PSI 자녀 영역	PSI 부모 영역	PHQ	GAD
양육 척도 총점	-												
노스한 혼육	.81***	-											
요인 1	.78***	.95***	-										
요인 4	.58***	.76***	.52***	-									
과잉반응	.79***	.28***	.29***	.16**	-								
요인 2	.70***	.22***	.13*	.91***	-								
요인 3	.72***	.29***	.30***	.15**	.88***	.60***	-						
CBCL 내재화	.15**	.13*	.12*	.09	.12*	.08	.14**	-					
CBCL 외현화	.26***	.12*	.12*	.08	.30***	.25***	.30***	.66***	-				
양육효능감	-.38***	-.19***	-.21***	-.09	-.43***	-.41***	-.35***	-.23***	-				
PSI 자녀영역	.37***	.24***	.27***	.11*	.34***	.24***	.38***	.44***	.53***	-			
PSI 부모영역	.34***	.18***	.20***	.08	.36***	.34***	.30***	.34***	.37***	.65***	-		
PHQ	.17***	.06	.06	.04	.21***	.21***	.16**	.41***	.34***	.39***	.61***	-	
GAD	.16**	.06	.08	-.01	.19***	.20***	.13*	.31***	.28***	.40***	.56***	.79***	-

주 1. 요인 1 = 비일관성; 요인 2 =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 3 =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 4 = 과잉하용.

주 2. CBCL =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PSI =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PHQ =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GAD = 범불안 증상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양육 척도의 심각도 수준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총점	18 - 41	42 - 54	55 - 67	68 - 126
느슨한 훈육	10 - 22	23 - 30	31 - 38	39 - 70
비일관성	7 - 14	15 - 21	22 - 27	28 - 49
과잉허용	3 - 6	7 - 9	10 - 12	13 - 21
과잉반응	8 - 17	18 - 24	25 - 32	33 - 56
정서적 과잉반응	4 - 11	12 - 16	17 - 20	21 - 28
행동적 과잉반응	4 - 5	6 - 8	9 - 13	14 - 28

이하(중간, “양육 과정에서 가끔 역기능적 양육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더 긍정적인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55점 이상 67점 이하(높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이 어렵게 나타나고 문제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부모 교육이나 양육 전략을 배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8점 이상(매우 높음,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이 자주 나타나고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각 하위 요인인 느슨한 훈육과 비일관성, 과잉허용, 그리고 과잉반응과 정서적 과잉반응, 행동적 과잉반응에 대한 심각도를 설정하였다(표 6).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훈육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양육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총 400명의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한국판 양육 척도의 요인 구조와 모형 적합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연구 결과, Prinzie 등(2007)이 제시한 20문항 2요인 구조와는 달리, 한국판에서는 18문항 4요인 구조와 위계적 구조가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판 양육 척도는 신뢰도와 수렴 및 준거타당도 면에서도 양호한 지표를 보여, 훈육 상황에서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양육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며 4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5, 6, 7, 8, 9, 10, 11번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제한을 설정하려 하지만, 자녀의 강압적인 반응에 따라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완화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요인 1을 ‘비일관성(inconsistency)’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12, 13, 17, 18번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요인 2를 ‘정서적 과잉반응(emotional over-reactivity)’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4, 15, 16, 20번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가 정서적인 반응을 넘어 욕설이나 신체적 체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과도한 행동을 통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이 요인은 Rhoades와 O'Leary(2007)가 제시한 '적대성(hostility)' 요인과 동일한 문항 구성을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들이 과잉반응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과잉반응을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개념적으로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요인 3을 '행동적 과잉반응(behavioral over-reactivity)'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1, 3, 4번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요인 4를 '과잉허용(over-permissiveness)'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최종 모형에서 2번과 19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2번 문항(아이가 어떤 일을 그만 했으면 할 때 나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확실히 말한다 ↔ 아이를 구슬리거나 사정한다.)은 비밀관성, 과잉허용,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에 교차 부하되었다. 이는 문항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한 설정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부모의 정서적 호소가 점차 강조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반응이 특정 요인에 명확히 속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9번 문항(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와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 아이와 말싸움을 길게 하고는 한다.)은 정서적 과잉반응과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에 교차 부하되었다. 이는 아이와 말싸움이라는 행동이 정서적인 반응과 이를 넘어 적대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동시에 반영하며, 두 요인의 경계에 위치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요인 구조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상위차원인 '느슨한 훈육'과 '과잉반응'을 유지하면

서, 훈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모 반응의 양상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원칙도에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과잉반응 요인은 표현 양식에 따라 정서적 및 행동적 과잉반응으로 세분화되었다. 정서적 과잉반응 요인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분노나 짜증과 같은 정서 표현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반영하며,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은 체벌이나 욕 등의 언어적 강압을 동반한 행동 수준의 반응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이 치료적 개입이나 부모 교육이 필요한 부모를 선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Rhoades & O'Leary, 2007)와도 일치하며, 하위요인 세분화의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칙도의 느슨한 훈육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제한설정의 유무에 따라 비밀관성과 과잉허용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비밀관성 요인이 아동에 대한 행동적 제한을 우선 시도한 이후에 이를 관철시키지 않는다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과잉허용 요인은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비밀관성과 과잉허용은 양육 척도 총점과는 큰 크기의 상관을 보였지만 둘 사이에서는 유의하지만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후술할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상관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밀관성 요인과 과잉허용 요인이 모두 느슨한 훈육에 속하지만, 제한 설정 여부에서 구분되는 반응임을 보여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판 양육 척도는 4요인 구조와 상위 요인을 포함한 위계적 구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쟁 모형으로 설정한 Prinzie 등(2007)의 2요인 구조는 수정 지수를 반영한 이후에도

적절한 적합도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4요인 구조와 위계적 모형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양육 척도가 하위 요인 수준에서 부모의 훈육 행동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위 차원의 느슨한 훈육과 과잉 반응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위 차원의 활용은 실제 적용 및 결과 해석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는 연구 목적에 따라 세부요인과 상위 요인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신뢰도 분석 결과, 한국판 양육 척도의 전체 문항과 각 하위 요인은 모두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이는 본 척도가 훈육 상황에서의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 및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 특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과잉허용 요인의 신뢰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요인이 3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과잉허용과 총점과의 상관이 큰 크기였음을 고려할 때, 양육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은 집단 수준 분석에서 탐색적이고 보조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잉허용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양육 척도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우선 4요인과 위계적 모형 모두 구조적 일관성이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비밀관성 요인과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이 큰 크기의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힘겨루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갈등을 회피하며 물러나는 비밀관적인 반응과 이후 행동적 과잉반응이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하였듯이, 이러한 패턴은 부모 자녀 간의 강압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며 부모의 행동적 폭발로 이어진다는 Patterson(1984)의 강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양육 척도의 총점은 Baumrind(1968)가 제안한 양육 유형을 측정하는 PSDQ 중 권위적(민주적)인 양육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 유형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육 척도가 Baumrind의 양육 유형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와 연관된 양육 행동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하위요인 중 정서적, 행동적 과잉반응은 권위주의적 양육 유형과 가장 높은 상관 효과 크기를 보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내보이거나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 체벌 등의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행동이 적대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권위주의적 부모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느슨한 훈육 요인과 그 하위 요인인 비밀관성 및 과잉허용은 권위주의적 양육 유형 보다는 허용적 양육 유형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이 있었다. 허용적 양육 유형이 아이의 욕구에는 반응하지만 규칙 적용과 통제는 덜 하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Baumrind, 1991), 이 요인들은 허용적 양육 유형의 명확하지 않은 규칙 설정과 비밀관적

인 후속 조치의 특성을 반영한다.

다섯째, 한국판 양육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역기능적 양육 행동과 이론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양육 척도의 정서적 및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과잉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Betts et al., 2009; Morgan et al., 2002). 아동의 내재화 문제 역시 부모의 비밀관성 및 행동적 과잉반응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반응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아동의 내면적 어려움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한국판 양육 척도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양육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Albanese et al., 2019; Jones & Prinz, 2005). 또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영역과 부모 영역 모두에서 양육 척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양육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역기능적 양육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잉허용 요인은 자녀영역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준거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허용적 양육 유형 또한 외현화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Ruiz-Robledillo et al., 2019; Stewart et al., 202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가자들의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평균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샘플

의 문제만이 아님을 가정해 보면, 과잉반응에 비해 과잉허용이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과잉반응은 외현화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변인임에 반해(Gershoff, 2002; Patterson, 1984), 과잉허용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이를 부적강화로 유지하는 변인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Granic & Patterson, 2006).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본 척도의 과잉허용 요인은 자녀 영역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PSI에서 측정하는 자녀 영역 스트레스는 자녀의 객관적 문제행동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게 지각하는 부모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한다(정경미 등,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허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부모의 주관적 지각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Glatz & Buchanan, 2015). 또한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나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과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적대적 행동, 반항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던 아동들의 경우에는 허용적 양육이 공격성을 더욱 탈억제시킬 수도 있지만, 외현화 문제의 초기 개입이나, 자기조절 능력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동에 대한 제약 없이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자녀의 외현화 문제가 임상적 절단점에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한 외현화 문제가 없는 아동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행동 제약 없이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등교 거부 등의 문제행동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고려해볼 때(성태훈, 2024), 적절한 한계 설정을 동반한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척도의 ‘과잉허용’ 요인이 국외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들의 과잉허용과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한국 문화권에서 허용적 양육이 본 척도의 과잉허용 개념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녀의 요구와 정서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개입하는 과잉수용(over-indulgence)과 같은 허용적 양육 유형의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Rudy & Grusec, 2006). 과잉허용이 규칙 설정과 한계 제시의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과잉수용은 자녀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보호를 포함하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Schiffrrin et al., 2014). 실제로 한국 문화권에서는 규칙과 한계 제시의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과잉허용(over-permissiveness) 보다는, 자녀의 정서와 요구에 대해 부적응적으로 과하게 수용해주는(over-indulgence)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박영신 등 2004; 김누리, 이정윤, 2020). 그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척도는 국외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훈육 반응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에 한국 부모의 실제 훈육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문항 보완이나 추가 척도 활용을 통해 허용적 양육의 다양한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은 과잉반응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이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Ginsburg et al., 2006).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과잉반응 하는 것이 부모의 우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거나, 우울 및 불안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또는 행동적으로 과잉반응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양방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느슨한 훈육 요인과 하위 요인인 비밀관성과 과잉허용 요인은 부모의 우울 및 불안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은 과잉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강압적인 태도와 허용적인 양육 행동을 오가는 비밀관적 양육 행동의 유무가 허용적 양육과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자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자녀의 욕구를 수용해주는 비교적 일관된 허용적 양육 유형이 부모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양육 척도의 활용을 위하여 심각도 수준 및 설명을 제시하였다. 평균에서 ± 1 표준편차로 절단점을 계산하여 역기능적 양육 행동의 정도를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으로 나누었다. 임상 진단을 위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 여부가 아닌 심각도 정보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만, 검사를 시행한 부모에게 보다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기보고식 자료

를 기반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측정 결과의 시간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일 시기에 모집된 표본을 무작위로 분할하여 실시하였기에, 완전히 독립된 표본에서 요인 구조를 재검증한 연구에 비해 요인 구조의 재현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와 독립 표본을 활용한 요인 구조 검증,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각도 수준은 임상적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평균을 기준으로 한 ± 1 표준편차의 통계적 기준에 근거하여 심각도 분류 기준에만 근거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점수는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기보다는 해석을 돕는 참고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렴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비교 척도인 PSDQ는 Baumrind의 고전적인 양육 유형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표준화 및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렴타당도 결과는 비교 기준의 제약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양육 행동 척도를 활용한 교차 검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부모의 훈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양육 척도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척도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다루어졌던 양육 행동이 여러 하위요인으로 구분된 것은 한국 문화 및 부모 자녀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부모의 훈육 상황에서의 양육 행동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척도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훈육 반응을 평가하고, 연구 및 현장에서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부모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훈육 반응의 양상을 파악하고, 개입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동기 문제 행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부모의 역기능적 훈육 반응이 그 발달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척도는 문제행동 위험군 가정을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는 부모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서 시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아, 대규모 조사 연구와 현장 기반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역기능적 양육 행동을 훈육 반응이라는 행동 수준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에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온 양육 행동을 보다 개념적으로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연구 및 실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누리, 이정운 (2020).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개념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1), 155-190.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55>
 김다혜, 이서희, 안정광 (2024). 청소년용 단축

- 형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와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 Social Phobia Scale-12 for Adolescent; SIAPS-12-A)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2), 463-487.
<https://doi.org/10.23844/kjcp.2024.05.36.2.463>
-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 (2014)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81731>
- 김현수, 신혜린 (2012). 어머니 불안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7(1), 93-1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0134>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36179>
- 성태훈 (2024). 회피형 등교거부 청소년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https://www.riss.kr/link?id=T17075990>
- 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47-5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66067>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부모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6-18. 휴노. <https://aseba.co.kr>
- 이승진 (2016).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에 아동의 연령, 양육자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523-541.
<https://doi.org/https://doi.org/10.20406/kjcs.2016.11.22.4.523>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24082>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viewKey=13494424&viewType=AH4>
- 임호찬 (2008).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영재교육연구, 18(3), 613-6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09434>
- 정경미, 이서이, 이창석 (2019).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4판(Korean-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K-PSI-4)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2), 247-273.

- <https://doi.org/https://doi.org/10.22257/kjp.2019.6.38.2.247>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2(4), 1287-1305.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287>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https://www.nctsn.org/measures/parenting-stress-index-full-length-version>
- Achenbach, T. M., Howell, C. T., Quay, H. C., Conners, C. K., & Bates, J. E. (1991). National survey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among four-to sixteen-year-olds: Parents' reports for normative and clinical sampl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6(3, Serial No. 225), 1-130.
<https://doi.org/10.2307/1166156>
- Ahn, J. K., Kim, Y., & Choi, K. H. (2019).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ut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GAD-7 and GAD-2. *Frontiers in Psychiatry*, 10, Article e127.
<https://doi.org/10.3389/fpsy.2019.00127>
- Albanese, A. M., Russo, G. R., & Geller, P. A. (2019). The role of parenting self efficacy in parent and child well being: A systematic review of associated outcom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5(3), 333-363.
<https://doi.org/10.1007/s10826-018-1296-y>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https://doi.org/10.1002/icd.385>
- Arney, F., Rogers, H., Baghurst, P., Sawyer, M., & Prior, M. (200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renting Scale for Australian mothers of preschool aged childre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0(1), 44-52.
<https://doi.org/10.1080/00049530701458076>
- Arnold, D. H. (1997). Co-occurrence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emergent academic difficulties in young high-risk boys: A preliminary evaluation of patterns and mechanis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17-330.
[https://doi.org/10.1016/s0193-3973\(97\)80003-2](https://doi.org/10.1016/s0193-3973(97)80003-2)
-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37-144.
<https://doi.org/10.1037/1040-3590.5.2.137>
-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https://doi.org/10.1111/j.2044-8317.1950.tb00285.x>
- Baumrind, D.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11), 255-272.
<https://www.proquest.com>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https://doi.org/10.1037/h0030372>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https://doi.org/10.1177/0272431691111004>
- Betts, J., Gullone, E., & Allen, J. S. (2009). An examination of emotion regula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as potential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risk status: A correlational stud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473-485.
<https://doi.org/10.1348/026151008x314900>
- Bögels, S. M., Hellemans, J., van Deursen, S., Römer, M., & van der Meulen, R. (2014). Mindful parenting in mental health care: Effects on parental and child psychopathology, parental stress, parenting, coparenting, and marital functioning. *Mindfulness*, 5(5), 536-551.
<https://doi.org/10.1007/s12671-013-0209-7>
-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Sage.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Byrne, B. M.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807644>
- Cohen, J. (1988). Set correlation and contingency tabl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2(4), 425-434.
<https://doi.org/10.1177/014662168801200410>
- Collett, B. R., Gimpel, G. A., Greenson, J. N., & Gunderson, T. L. (2001). Assessment of discipline styles among parents of preschool through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3), 163-170.
<https://doi.org/10.1023/a:1010965220517>
- Compton, K., Snyder, J., Schrepferman, L., Bank, L., & Shortt, J. W. (2003). The contribution of parents and siblings to antisocial and dep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A double jeopardy coercion mode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63-182.
<https://doi.org/10.1017/s0954579403000099>
- Dimitrov, D. M. (2012). *Statistical methods for validation of assessment scale data in counseling and related field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https://search.alexanderstreet.com/preview/work/bibliographic_entity%7Cbibliographic_details%7C3406806
- Eddy, J. M., Leve, L. D., & Fagot, B. I. (2001). Coercive family process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Patterson's coercion model. *Aggressive Behavior*, 27(1), 14-25.
[https://doi.org/10.1002/1098-2337\(20010101/31\)27:1<14::AID-AB2>3.0.CO;2-2](https://doi.org/10.1002/1098-2337(20010101/31)27:1<14::AID-AB2>3.0.CO;2-2)
-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L.,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Zhou, Q., & Losoya, S. 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https://doi.org/10.1037/a0016213>
- Erkorkmaz, Ü., Etikan, İ., Demir, O., Özdamar, K., & Sanisoğlu, S. Y. (2013). Doğrulamalı faktör analizi ve uyum indeksleri. *Türkiye Klinikleri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3(1), 210-223.

- <https://doi.org/10.5336/medsci.2011-26747>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https://doi.org/10.1037//1082-989x.4.3.272>
- Frye, A. A., & Garber, J. (2005). The relations among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criticism,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1), 1-11.
<https://doi.org/10.1007/s10802-005-0929-9>
- Fuentes-Balderrama, J., Castillo, C. C. D., García, A. O., Loving, R. D., Plaza, B. T., & Cardona, J. R. P. (2020).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s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A Mexican preadolescents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13(1), 9-18.
<https://doi.org/10.21500/20112084.4478>
-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https://doi.org/10.1037/0033-2909.128.4.53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https://www.bristol.ac.uk/media-library/sites/sps/documents/c-change/parenting-sense-of-competence-scale.pdf>
- Ginsburg, G. S., Grover, R. L., Cord, J. J., & Ialongo, N. (2006). Observational measures of parenting in anxious and nonanxious mothers: Does type of task matt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5(2), 323-328.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502_16
- Glatz, T., & Buchanan, C. M. (2015). Over-time associations among parental self-efficacy, promotiv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3), 427-437.
<https://doi.org/10.1037/fam0000076>
- Granic, I., & Patterson, G. R. (2006).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antisocial development: A dynamic systems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13(1), 101-131.
<https://doi.org/10.1037/0033-295X.113.1.101>
- Grolnick, W. S., & Pomerantz, E. M. (2009). Issues and challenges in studying parental control: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65-170.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9.00099.x>
- Gryczkowski, M. R., Jordan, S. S., & Mercer, S. H. (2010). Differenti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5), 539-546.
<https://doi.org/10.1007/s10826-009-9326-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Cengage.
<https://search.worldcat.org/ko/title/1055897413>
- Harvey, E., Danforth, J. S., Ulaszek, W. R., & Eberhardt, T. L. (2001). Validity of the Parenting Scale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ehaviour*

- Research and Therapy*, 39(6), 731-743.
[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52-8](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52-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Irvine, A. B., Biglan, A., Smolkowski, K., Metzler, C. W., & Ary, D. V. (1999).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ng skills program for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mall communi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6), 811-825.
<https://doi.org/10.1037/0022-006x.67.6.811>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https://doi.org/10.1016/j.cpr.2004.12.004>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https://doi.org/10.1007/bf02291575>
- Kroenke, K., Spitzer, R. L., & Williams, J. B.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https://doi.org/10.1046/j.1525-1497.2001.01600.9606.x>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Wiley.
<https://scispace.com/papers/socialization-in-the-context-of-the-family-parent-child-35ca5owg5q>
- Moore, P. S., Whaley, S. E., & Sigman, M. (2004).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mpacts of maternal and chil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3), 471-476.
<https://doi.org/10.1037/0021-843x.113.3.471>
- Morgan, J., Robinson, D., & Aldridge, J. (2002).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r.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7(3), 219-225.
<https://doi.org/10.1046/j.1365-2206.2002.00242.x>
- Patterson, G. R., & Wells, K. C. (1984). 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 3: Coercive family process. *Behavior Therapy*, 15(1), 121-127.
[https://doi.org/10.1016/S0005-7894\(84\)80046-5](https://doi.org/10.1016/S0005-7894(84)80046-5)
- Pinquart, M., & Teubert, D. (2015). Links among co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s using the new German coparenting inventory. *Family Science*, 6(1), 201-210.
<https://doi.org/10.1080/19424620.2015.1065284>
- Prinz, P., Onghena, P., & Hellinckx, W. (2007). Reexamining the Parenting Scale: Reliability,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of a scale for assessing the discipline practices of mothers and fathers of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24-31.
<https://doi.org/10.1027/1015-5759.23.1.24>
- Reitman, D., Currier, R. O., Hupp, S. D., Rhode, P. C., Murphy, M. A., & O'Callaghan, P. M. (2001).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ing Scale in a Head Star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 514-524.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004_08
- Rhoades, K. A., & O'Leary, S. G. (2007).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of the Parenting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2), 137-146.
<https://doi.org/10.1080/15374410701274157>
- Robinson, C. C., Mand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https://doi.org/10.2466/pr0.1995.77.3.819>
- Robinson, E. A., & Eyberg, S. M. (1981). The dyadic parent - 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2), 245-250.
<https://doi.org/10.1037/0022-006x.49.2.245>
- Rodriguez-Ayllon, M., Cadenas-Sánchez, C., Estévez-López, F., Muñoz, N. E., Mora-Gonzalez, J., Migueles, J. H., Molina-García, P., Henriksson, H., Mena-Molina, A., Martínez-Vizcaíno, V., Catena, A., Löf, M., Erickson, K. I., Lubans, D. R., Ortega, F. B., & Esteban-Cornejo, I. (2019). Role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in the mental health of preschoolers,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ports Medicine*, 49(9), 1383-1410.
<https://doi.org/10.1007/s40279-019-01099-5>
- Rudy, D., & Grusec, J. E. (2006). Authoritarian parenting in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groups: Associations with maternal emotion and cognition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 68-78.
<https://doi.org/10.1037/0893-3200.20.1.68>
- Ruiz-Robledillo, N., Ferrer-Cascales, R., Albaladejo-Blázquez, N., & Sánchez-SanSegundo, M. (2019). Family and school contexts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8(12), Article e2066.
<https://doi.org/10.3390/jcm8122066>
- Sanders, M. R., Markie-Dadds, C., & Turner, K. M. T. (2003).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Practitioner's manual* (2nd ed.). Triple P International. <https://www.triplep.net>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https://www.jstor.org/stable/1126465>
- Schiffr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https://doi.org/10.1007/s10826-013-9716-3>
- Serbin, L. A., Kingdon, D., Ruttle, P. L., & Stack, D. M. (2015). The impact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on parenting: Transactional processes and reciprocal change over ti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 969-986.
<https://doi.org/10.1017/s0954579415000632>
- Shoshani, A., & Aviv, I. (2012). The pillars of strength for first-grade adjustment - Parental and children's character strengths and the

-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4), 315-326.
<https://doi.org/10.1080/17439760.2012.691981>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Smetana, J. G. (2017). Current research on parenting styles, dimensions, and belief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5, 19 - 25.
<https://doi.org/10.1016/j.copsyc.2017.02.012>
- Snyder, J., Cramer, A., Afrank, J., & Patterson, G. R. (2005). The contributions of ineffective discipline and parental hostile attributions of child misbehavior to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30-41.
<https://doi.org/10.1037/0012-1649.41.1.30>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https://doi.org/10.1016/j.dr.2009.11.001>
- Sörbom, D. (1989). Model modification. *Psychometrika*, 54(3), 371-384.
<https://doi.org/10.1007/BF02294623>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o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https://doi.org/10.1001/archinte.166.10.1092>
- Stevens, J. P. (2009).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5th ed.). Routledge.
<https://psycnet.apa.org/record/2008-17691-000>
- Stewart, S. L., Brock, B., Manis, J., Vasudeva, A., & Poss, J. W. (2024). The relationship between kinship and foster placement on mental health indicators in children and youth seeking treatment. *Child Protection and Practice*, 3, Article e100061.
<https://doi.org/10.1016/j.chipro.2024.100061>
- Taraban, L., & Shaw, D. S. (2018). Parenting in context: Revisiting Belsky's classic process model. *Developmental Review*, 48, 55-81.
<https://doi.org/10.1016/j.dr.2018.03.006>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1.tb01580.x>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s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https://psycnet.apa.org/record/1995-97753-004>
- Wittkowski, A., Garrett, C., Calam, R., & Weisberg, D. (2017).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2960-2978.
<https://doi.org/10.1007/s10826-017-0830-5>
- Wong, M. D., Dosanjh, K. K., Jackson, N. J., Rünger, D., & Dudovitz, R. N. (2021). The

-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school climate with adolescent social and emotional health. *BMC Public Health*, 21(1), Article e207.
<https://doi.org/10.1186/s12889-021-10245-6>
- 원고접수일 : 2025. 11.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1. 23.
게재확정일 : 2026. 01. 29.
- Zhang, W., Ren, P., Yin, G., Li, H., & Jin, Y. (2020).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preschool-aged children: Parents' attitudes, knowledge and practices in Beijing, China.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9(3), 295-311.
<https://doi.org/10.1080/10538712.2019.1709240>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cale for Children*

Sunjung Kim¹⁾ Subeen Kim²⁾ Jung-Kwang Ahn^{2)†}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Student

²⁾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Student

³⁾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Parenting Scale,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dysfunctional parenting behaviors, for use among Korean parent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 total of 400 parents (160 fathers and 240 mothers; mean age = 43.4 year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The sample was randomly divid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The EFA identified an 18-items, four-factor structure comprising Inconsistency, Emotional Over-reactivity, Behavioral Over-reactivity, and Over-permissiveness. The CFA supported both the four-factor model and a hierarchical model with the original two factors as higher-order dimensions, demonstrating acceptable model fit. The final scale demonstrated good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with strong correlations with other parenting measures. It also demonstrated good criterion validity, demonstrating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pression, anxiety, and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efficacy. These findings support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cale as a culturally appropriate assessment tool and provide severity guidelines that may facilitate clinical evaluation and intervention.

Keywords : parenting behavior, inconsistency, emotional over-reactivity, behavioral over-reactivity, over-permissiveness

* This study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2025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ehavioural and Cognitive Therapies (EABCT).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K21 program(2024).

† Corresponding Author : Jung-Kwang Ahn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28644)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Republic of Korea / Tel: +82 43-261-2185 / E-mail: jkahn@cbnu.ac.kr

부록 1. 양육행동 척도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녀에 대한 당신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No.	문항									
1	아이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치를 취한다	1	2	3	4	5	6	7	자주 그냥 봐준다
2	아이가 어떤 일을 그만 했으면 할 때 나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확실하게 말한다	1	2	3	4	5	6	7	아이를 구슬리거나 사정한다
3	나는 ...	아이가 해도 되는 일에 제한을 두는 부모이다	1	2	3	4	5	6	7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두는 부모이다
4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나는	아이에게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한다	1	2	3	4	5	6	7	아이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둔다
5	내가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속상해하면	나는 아이에게 끝까지 못하게 한다	1	2	3	4	5	6	7	나는 한 발 물러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
6	내가 충분히 엄포를 놓고 경고를 했을 때 나는	경고한대로 한다	1	2	3	4	5	6	7	종종 경고한대로 하지 않는다
7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	1	2	3	4	5	6	7	나중에 조치를 취한다
8	나는 강한 경고를 할 때	반드시 경고한대로 한다	1	2	3	4	5	6	7	실제로는 경고한대로 하지 않을 것 같다
9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이 먹히지 않을 때 나는	아이가 말을 듣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다	1	2	3	4	5	6	7	아이가 말을 듣도록 좋아할 만한 것을 준다
10	외출할 때 나는	집에서 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다룬다	1	2	3	4	5	6	7	아이에게 훨씬 허용적이다
11	아이가 내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아이가 말을 듣도록 다른 조치를 취한다	1	2	3	4	5	6	7	종종 그냥 두거나 결국 내가 하게 된다

부록 1. 양육행동 척도		(계속)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녀에 대한 당신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No.		문항												
1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한다	1	2	3	4	5	6	7	목소리가 커지거나 소리를 지른다				
1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를 해결한다	1	2	3	4	5	6	7	아이가 알아차릴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14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인격모독, 또는 욕을 한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대부분 그렇다				
15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 나쁜 말이나 욕을 거의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거의 언제나 욕을 한다				
16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이를 때리거나, 뺨을 치거나, 세계 몸을 붙잡는 등의 처벌을 가한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대부분 그렇다				
17	내가 속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1	2	3	4	5	6	7	나는 예민해져서 애를 잡는다				
18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짧게 요점을 말한다	1	2	3	4	5	6	7	아이에게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는다				
19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아이와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아이와 말싸움을 길게 하고는 한다				
20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	결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일이 점점 커져서 내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				

주. 비일관성(요인 1) = 문항 5-11; 정서적 과잉반응(요인 2) = 문항 12, 13, 17, 18; 행동적 과잉반응(요인 3) = 문항 14-16, 20; 과잉허용(요인 4) = 문항 1, 3, 4

부록 2. 부모 집단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집단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부	2요인	188***	132	.89	.87	.08	.07	.05	.09
	4요인	163	127	.93	.92	.08	.06	.02	.08
	위계적 요인	163	128	.93	.92	.08	.05	.02	.08
모	2요인	239***	132	.88	.86	.085	.09	.07	.10
	4요인	225***	127	.89	.87	.082	.08	.07	.10
	위계적 요인	225***	128	.89	.87	.082	.08	.07	.10

주. CI = confidence interv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SRMR = standard root-mean-square residual;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01$.